

# 지혜와 열정으로 출판의 밀림 헤쳐가기

## 출판계의 여성참모부대 '한국여성편집자클럽'

20, 30대의 꽃다운 청춘을 오로지 '책'과 '글'의 밀림 속에서 헤쳐온 여성참모부대가 움직이고 있다. '한국여성편집자클럽'(회장 양계성)이 그것. 곳곳에 덮이 놓이고 길이 막히는 출판전선에서 신병부터 시작해 참모의 위치에 오른 여성편집장의 모임이다.

여성편집장들이 하나들 나타나기 시작한 89년 겨울부터 몇몇 사람들 사이에 이심전심의 기운이 일기 시작했다. '따로 또 같이' 현장의 고충과 경험을 나누자는 취지였다. 김혜숙(당시 문예출판사 편집부장), 이덕희(당시 동녘 기획실장), 주상희(당시 서광사 편집부장), 형난옥(현 현암사 주간) 등 네명이 의기투합했다. 준비모임을 갖고 90년 1월부터 모임을 공식화했다. 야전에서 전뺨가 굵은 이들의 소공화국이 탄생한 것이다.

### 탄탄한 조직력으로 내부결속 다져

90년 4명이던 회원이 97년 현재 임원진인 양계성 회장(교문사 편집부장), 이정희 기획부장(등지 편집부장), 황민선 총무(김포전문대 전자출판과 교수), 김현정 서기(동아출판사 단행본팀 전임), 신정에 조직부장(자유기고가)을 포함해 모두 23명. 이밖에 강광실(사계절 대표), 강순부(지성의 샘 편집부장), 김미숙(자작나무 편집부장), 김혜숙(프리랜서), 박소희(소설가), 박정하(문예출판사 편집부장), 오연조(책마당 편집부장), 오주연(지호출판사 편집부장), 윤양미(한글사 편집차장), 이덕희(출판기획자), 이수미(전 웅진출판사 단행본팀 과장), 이연숙(출판기획자),

### 입회자격이 까다로운

'한국여성편집자클럽'은 8년의

짧지 않은 연륜 만큼이나

탄탄한 조직력으로 뚝뚝 뚫쳐

서로의 아픈 속내와 출판계

사안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

정영숙(한솔출판 이사), 조은희(한솔출판 연구개발본부 차장), 주상희(세주코리아 기획부장), 지미정(미술문화 대표), 형난옥, 황영심(문학동네 편집차장) 등이 회원들이다.

다른 모임과 달리 입회자격이 유난히 까다롭다. '여성편집자들의 전문인력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며, 후배 여성편집자들을 양성한다'는 명문화된 목적에 동의하는 편집자, 거기다 편집경력 5년 이상의 직급 있는 여성이어야 한다. 준회원은 5년 미만의 편집경력을 가진 여성. 특별회원은 모임의 목적에 동의하는 남성과 여성이다. 매년 12월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세불리기식 조직화장보다 모임의 정예화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정기모임은 매월 셋째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사계절출판사에서 열린다. 발제자가 한달 동안의 출판정보를 추려 발표한다. 서로 다른 채널을 통해 입수된 정보들이 대량유통된다. 이어 외부초청인사나 회원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8년의 짧지 않은 연륜만큼이나 탄탄한 조



매월 셋째주 화요일 사계절출판사에는 출판계에서 전뺨가 굵은 여성편집자들이 모인다.

직력과 응집력으로 뚝뚝 뚫쳐 서로의 아픈 속내를 얘기하기도 하고, 출판계 공통사안에 대해 머리맞대고 고민하기도 한다.

### 실무중심으로 논의

회원들이 서로 번갈아 주제를 정해 발제를 맡는다. 올해만 해도 지미정 회원이 '디자인의 세계 - 편집·광고·표지에 필수적인 디자인에 대하여'를, 볼로냐 국제도서전을 참관한 형난옥 회원이 '세계출판계의 동향'을 발표했다. '인터넷, CD-ROM에 대하여'는 황민선 회원이 정리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추곡리 출판캠프에서 논의되었던 주제들을 다시 정리, 분석하는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서 논의된 자료들은 항상 정리 보관한다. 회원들의 고민의 축적물이자 후배 편집

자들을 위한 귀중한 세습자산이기 때문이다.

해마다 외부인사도 초청한다. 지금까지 정병규 북디자인, 한승헌 변호사, 한기호 창비 영업기획실장, 이영준 황금가지 대표 등이 북디자인, 저작권, 출판마케팅, 기획의 흐름 등에 대해 강연했다.

이번 달까지 신입회원을 모집하고 12월에 망년회 겸 정기총회를 연다. 새로운 회장단을 구성해 내년 일정과 계획안을 마련하고 신입회원들의 입회절차를 밟는다. 새 술이 담길 새 부대를 만드는 것이다.

양계성 회장은 "앞으로 축적된 내부역량을 모아 후배 편집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는 일이 목표"라고 말한다. 다른 모임들과의 연대도 모색해볼 예정이다.

- 박천홍 기자

### 녹색윤리

양명수 지음/224면/7,000원

기술 문명은 인위의 문명으로 인위는 역사의식을 낳았지만 인위에서 눈을 돌리면 자연이 있다. 이제 자연을 새롭게 인식하여 그동안 사람 중심에서 단지 환경에 불과했던 자연을 주체로 봄으로써 사람과 자연이 주체 대 주체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철학만화① 너 자신을 알라

조준상 글·그림/192면/6,000원

어렵고 부담스럽게만 느끼고 있는 철학을 청소년과 일반 독자들이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우리 필자의 글과 그림의 만화로 엮어 기획한 서광사의 철학만화 시리즈 첫권으로 그리스·로마 철학자의 삶과 사상을 다루고 있다.

### 존 스튜어트 밀:생애와 사상

W. 토머스 지음/허남결 옮김/192면/6,500원

《자유론》의 저자로 우리에게 익숙한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생애와 학문을 날카로운 필치로 요약·소개하고 있는 밀 입문서로 수많은 문헌들의 주제가 되고 있는 밀을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짚어낸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 현대의 철학적 인간학

K. 로렌츠 지음/강학순 옮김/224면/7,500원

'철학적 인간학'에 대한 최신 정보와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기 위한 필독서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20세기에 출발한 철학의 한 분과인 철학적 인간학에 관한 모든 입장을 저자 자신의 고유한 관점과 방법론을 통해 정리한 인간학 분야의 최신 연구서이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

매간토시 편집에 자신있는 편집자를 찾습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11월 10일까지 연락주시시오.